

# 복숭아에서 배꽃바구미의 발생보고

김동근, 김승한, 권태영<sup>1</sup>, 최성국, 윤재탁, 최영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sup>1</sup>청도복숭아시험장

경북 청도 지역의 복숭아 재배포장에서 꽃봉오리 내부의 유충에 의해 꽃봉오리가 고사하거나 개화 후 낙화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발생은 주로 산을 개간한 지역에서 발생이 많아 심할 경우 꽃이 거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혔으며 평지로 내려올수록 발생이 차츰 줄어들었으나 조사한 전체 지역에서 발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포장 내에서도 발생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일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복숭아 품종간 발생의 차이는 없었다. 피해 꽃을 채집하여 절개하였을 때 씨방부위에 유충이 존재하여 가해하고 있었다. 가해 유충은 전체적으로 황색이었으며 두부는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양쪽 끝이 몸통에 비해 가늘었다. 번데기 형성 후 성충으로 우화시까지 경과시간은 실온에서 10~12일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우화한 성충은 몸길이 4~5mm정도로 흑갈색을 띠고 있었고 날개 중앙후반에 흰색의 띠를 형성하고 있었다. 구기는 길게 돌출 되어 있고 한 쌍의 더듬이가 있었다. 위의 결과로 본 해충을 배꽃바구미로 동정하였다.